살게라스의 무덤

로버트 브룩스

제 3 부: 무덤의 격노

거대한 마력의 파도가 맞부딪히고, 비전과 지옥 마력의 소용돌이가 되어 부풀어 올랐다. 거대한 방이 뒤흔들리고, 불의 격류가 사방을 채웠지만, 카드가와 굴단은 흔들리지 않았다. 꿈쩍도 하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카드가는 그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두 팔을 앞으로 내밀고 턱을 치켜들었다. 책략의 여지는 없었다. 끝없이 쇄도하는 순수한 힘의 대결 뿐.

둘의 격노가 충돌하는 곳에 불길이 치솟았다. 대기가 불타오르려 했다. 그랬다가는 무덤 속 모든 것이 파괴되리라. 카드가도, 굴단도 함께.

둘 다 물러서지 않았다.

—굴단, 멈춰라.—

그 지긋지긋한 목소리다. 킬제덴. 굴단은 소리쳤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복종해라. 힘을 거둬.—

“죽일 수 있습니다!” 굴단은 분노했다.

카드가는 싱긋 웃었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건 누구냐, 굴단? 누가 네 목줄을 쥐고 있지?” 굴단은 말 없는 포효로 답하며, 더 큰 마력을 대마법사에게 내뿜었다. 불꽃이 튀었지만, 카드가는 거친 웃음과 함께 그 마력을 쳐냈다. “네 주인 중에 우리가 아직 안 죽인 게 누구냐?”

킬제덴의 목소리가 굴단을 붙잡았다.

— 어서 끝내라! 오늘은 너희 둘 다 죽을 수 없다.—

"뭐라고?!"

— 어서 멈춰!—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최후 통첩이었다. 굴단이 복종하지 않으면, 지금 즉시 군단으로부터 소외될 것이다.

그래서 굴단은 복종했다. 두 팔을 활짝 펴고 자신의 힘을 얇고 순수한 지옥불의 막으로 펼쳤다. 카드가의 공격이 막을 꿰뚫자, 막은 눈부신 빛의 폭발을 일으켰다. 카드가는 눈을 가렸고, 빛이 사라지고 나자 굴단도 보이지 않았다.

카드가는 몸을 곧게 펴고 어깨를 털었다. 로브의 실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아직 여기 있는 거 안다, 굴단. 네가 달아날 곳은 없어."

굴단은 어둠 속에 몸을 감췄다. 감시자들을 상대할 때 썼던 마법 덕분에 카드가는 그를 볼 수 없었지만, 대마법사에겐 그를 찾아낼 다른 방법이 있었다. "일을 마치려다가는 놈에게 들킬 겁니다." 굴단은 킬제덴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자를 처치하겠습니다."

*— 놈은 승리하려고 **무슨 짓이든** 할 거다. 언젠가 그게 우리의 기회가 되리라. —*

굴단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타는 군단의 계획에 카드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로운 일이었다. *정말 저자가 배신하게 할 수 있을까? 만약 성공한다면, 군단에 내가 필요할까?* 배신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굴단은 어둠 속에서 계속 움직였다. 카드가가 빛나는 비전 보주를 생성하여 조금씩 어둠을 쫓아냈다.

그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네 역할은 뭐냐, 굴단? 킬제덴이 네게 명령을 하느냐? 아니면 놈의 강아지냐?"

그의 목소리가 모든 돌에서 한꺼번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영리했다. 자신의 위치를 감추는 방법이었다. 굴단은 재빨리 모방했다. 지옥의 힘을 약간 더하자, 그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카드가, 도와 줘서 고맙단 얘길 안 했군. 내 병력만으로는 강철 호드를 쓰러뜨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너와 네 친구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

카드가는 웃었다. "그래, 네겐 아주 잘 된 일이지. 그런 일이라면 언제든 도와 주마." 그는 빙글 돌아서 화염을 굴단에게 발사했다. 돌기둥이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천정에서 바위가 떨어지며 산사태처럼 우르릉거렸다.

굴단은 가만히 혼돈이 가라앉길 기다렸다. 공격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적중했다. 몸을 제대로 숨기지 못한 걸까? 하지만 잠시 후, 카드가는 고개를 돌렸다. 그냥 운이 좋았던 모양이었다.

카드가의 등이 굴단에게 훤히 보였지만, 공격할 수가 없었다.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전투가 고조된 와중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 *킬제덴은 격분하겠지만, 아직은 내가 필요하다.* 굴단은 적당한 때가 되면 자신의 이론을 시험해 볼 생각이었다.

그때까지는 서둘러야 한다. 한 걸음도 서툴게 디딜 수는 없다. "킬제덴, 이 무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알려 주십시오."

침묵. 그리고 잠시 후, 킬제덴이 응답했다.

—잘 들어라.—

귀를 기울였다. 킬제덴의 말을 들으며, 굴단은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뒤틀며 웃었다.

카드가는 천천히 방 중앙을 거닐며, 발소리를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거대한 공간이었다. 기둥이 줄지어 선 채 어둠 속으로 뻗어 있었고, 반쯤 깨어난 룬의 빛이 희미하게 맴돌았다. 굴단이 숨을 수 있는 곳은 끝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를 쫓는 것보다는 끌어내는 게 쉬울 터였다.

“혹시 겁을 먹은 거냐, 굴단?” 답은 없었다. 카드가는 자신의 말과 움직임이 단검처럼 흑마법사의 자존심을 꿰뚫기를 기대했다. 굴단은 물러나라는 지시가 달가울 리 없었다. *불타는 군단이 그자를 그렇게까지 움켜쥐고 있는 건가?* 카드가는 대수롭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서 잘 단련된 적을 처치해 본 적이 있기는 한가?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상대 말이다. 다른 굴단은 그렇지 않았다. 드레노어에서 아제로스를 침공해서, 수많은 도시들을 함락시켰지만, 항상 더러운 일은 남에게 시켰지. 너라면 지금 일이 꽤 불편하겠구나.”

부스럭거리는 소리. 살결이 옷에 스치는 소리가 카드가에게 경고했다. 굴단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었다.

포효하는 초록색 불의 벽이 카드가의 등으로 밀어닥쳤다. 그는 불길이 다가오길 기다렸다. 열기가 목에 닿을 때쯤 간단한 손동작을 했다. 비전 마법이 주위의 공기를 얼리고, 얼음 방벽이 그를 감쌌다.

굴단의 불은 물방울이 몇 개 맺히게 했을 뿐이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굴단은 다시 어둠 속으로 물러났다. 카드가는 웃었다. 다시 손짓을 하자 방벽이 수많은 조각으로 깨지며 싱그러운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카드가는 몸을 부르르 떨어 한기를 떨치고 다시 걸었다. 장화가 얼음을 짓이겼다. “정말 아까웠다.”

숨죽여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방안에 울렸다.

카드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날 공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했나? 군단의 체벌은 어떤 식이냐, 굴단? 이제 착한 강아지가 됐어?”

오크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곧 터져버릴 것 같았다. “운명을 믿느냐, 인간?” 굴단이 물었다.

이상한 질문이었다. “*너의* 운명이라면 알고 있지.”

“구원은 어때?”

“구원? 너 말이야? 안 되지.” 카드가는 콧방귀를 뀌었다.

“아니, 내가 아니다. 난 너희 구원은 지긋지긋하다. 내가 듣기로는, 헬스크림의 아들도 그랬다고 하더군.”

그 말은 사실이었다. “너는 뭘 원하냐? 꼭두각시 노릇 하는게 좋진 않을 텐데.”

“난 내 적들을 불태우고 싶다.” 굴단이 말했다.

“멋지군.” 카드가가 말했다. 공격은 계속되지 않았다. 굴단은 시간을 끌고 있었다.

카드가는 방을 살폈다. 가까운 곳에서 기둥 받침이 반짝여 그의 시선을 끌었다. 그 룬은 알아볼 수 있었다. 고대 명가의 작품이었다. 고대의 전쟁 도중, 군단이 여기 차원문을 열어 또 다른 전선을 구축하려 했을 때, 상당한 마력을 투입하여 이곳을 봉인해야 했다.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었다. 다섯 개의 봉인 중 하나. 공부를 하던 때 본 적이 있었다. 카드가는 가까이 다가가 룬을 살펴봤다. 매혹적인 작품이었다. 다급하게 그렸지만, 무척 정밀했다. 게다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보라색 빛이 파문을 일으키며——

뭔가 소리가 들렸다. 봉인이 초록색으로 빛난 후 어두워졌다. 카드가는 멍하니 바라봤다. 잠시 후 봉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봉인이 그의 눈앞에서 파괴되었다. 카드가는 마음 깊은 곳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굴단. 놈은 숨은 채로 봉인을 파괴하고 있었다.

봉인이 모두 사라지면? *군단이 승리한다.* 카드가는 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어깨 높이의 눈물 모양 피조물을 생성하고 마력으로 가득 채웠다. 두 개의 팔이 나타나고, 비전 정령이 눈을 떴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카드가는 어둠 속을 가리키며 말했다. “누군가 숨어 있어. 그 녀석이 나타날 때까지 바위를 걷어차 줘.”

“복종합니다.” 정령이 말했다. 다리가 없으니 뭔가를 실제로 걷어찰 순 없겠지만, 정령은 아무 대꾸 없이 동쪽 구석으로 갔다. 다행이었다. 정령은 지시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일도 많았으니까. 굴단은 어떻게든 드러나겠지만, 정령을 하나만 쓸 이유도 없었다. 카드가는 정령들을 더 소환했다. 흑마법사에게 압력을 가할 때가 됐다.

놈의 주인에게도 압력을 가해야겠어. 갑자기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정신을 흐트려 놓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래, 굴단.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네가 어떻게 죽었는지 군단이 알려 줬나?"

그건 내가 아니야. 굴단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짜증과 함께 호기심이 생겨났다. 다른 굴단의 최후를 대마법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걸까?

킬제덴이 그의 마음을 읽었다.

—무시해.—

"네, 압니다." 굴단은 여전히 고통에 잠겨 쇳소리를 냈다. 카드가를 공격한 후, 곧바로 주인을 거역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래서 굴단은 더 분노했다. *높은망치의 노예들도 이것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았을 테지.*

그는 방을 이리저리 둘러 보았다. 근처엔 카드가의 피조물이 하나도 없었다. 굴단은 카드가가 눈치채지 못하게 지옥 마력을 극소량만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킬제덴은 이 무덤에 대한 진실을 드러냈다. 최초의 구조물은 수천 년 전 악마를 막는 수호물로 보호되고 있었지만, 굴단은 악마가 아니었다. 여기엔 너무 많은 힘이 담겨 있고, 그 중에는 군단의 것이 아닌 힘도 있었다. 능숙하게 뒤덮어 감추고 조심스럽게 숨겨 놓은 탓에 지금껏 단 한 명만이 찾아낼 수 있었던 힘. 하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일만 년이 지나자, 불완전한 필멸자가 티탄의 힘으로 엮은 봉인들에 작은 약점들이 드러났다.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군단은 이 봉인에 손을 댈 수 없었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게을리하지 않았다. 고대에 수호물을 만든 자들은 봉인을 파괴하려는 자를 모두 처치하려고 했지만, 굴단은 이미 다섯 개의 봉인을 모두 파괴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나는 벌써 파괴되었고, 굴단은 살아남았다. 군단은 정확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네 개 남았다.*

굴단이 힘을 가하자 뭔가 부서졌다. 무덤 전체가 흔들렸다. 봉인이 또 하나 깨졌다. *셋 남았다.* 그는 카드가를 올려다 봤다. 대마법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모양이었다. 봉인을 파괴하는 일은 굴단이 생각했던 것처럼 극적이지 않았다.

이 차원문을 열기까지 군단이 준비해 온 힘 모두가 멀리서 굴단을 부르는 것만 같았다. 너무 오랫동안 잠자던 힘이다. 이제 차지해야 했다.

흥미롭게도 군단은 이 아래에 *또 다른* 힘의 원천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굴단은 그걸 느낄 순 있어도 손에 넣을 순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상관 없는 힘이었다.

카드가의 목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호드는, 첫 번째 호드는 로데론 전역을 공격했다. 넌 그들을 버리고 여기 왔고." 카드가의 정령 중 하나가 가까이 다가왔지만, 그를 보지는 못했다. "바다 아래에 있던 이 섬을 네가 끌어올렸지. 아주 멋졌다."

굴단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꿈틀거렸다. 지옥 마력이 무덤의 룬 안쪽 깊은 곳에서 움직이며 세 번째 봉인을 찾았다. *저기 있군.* 굴단은 붙잡으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너무 미끄러웠다. 그 약점을 열려고 할 때마다 손이 미끄러졌다. 어둠 속에서 거미의 비단줄 매듭을 푸는 것 같았다. 그것도 발가락으로.

"그 충성심에 대한 대가로 네가 어떻게 됐는지 아나, 굴단?" 카드가가 물었다.

갑작스럽게 굴단의 마법이 손을 벗어났다. 세 번째 봉인은 아주 산산이 부서졌다.

낮게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방 전체를 울리고, 무너지는 소리가 뒤따랐다. 굴단은 얼어붙었다. 카드가의 피조물들도 움직임을 멈췄다. 낮게 웅웅거리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방의 벽과 바닥을 이루는 모든 돌에서 초록색과 보라색 불빛이 번쩍였다.

굴단은 세 번째 봉인을 깨뜨렸을 뿐 아니라, 우연히 네 번째까지 파괴했다. 목숨을 잃지 않은 건 기적에 가까웠다.

봉인은 겨우 하나 남았다. 킬제덴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잘했다. 마지막도 파괴하라.—

굴단은 머뭇거렸다. 마지막 봉인은 어딘가 달랐다. 조심스럽게 더듬어 봐도 약점은 없었다. 믿을 수 없게 강하고, 매 순간 점점 더 강해졌다. 무덤 그 자체가 봉인을 강화했고, 봉인에서는 비전 마력이 뿜어져 나왔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했다. 누군가 이 순간을 예상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 둔 것이다. 다른 누군가의 힘이 관여하고 있었다. 수 세기 전 이곳을 차지했던 다른 필멸자, 그 여자의 작품이었다.

“킬제덴, 어떻게 된 겁니까?” 굴단은 속삭였다.

아무런 답이 없었다.

빛이 방을 채웠다. 굴단은 카드가가 막대한 양의 비전 마력을 준비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대마법사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게 분명했다. “*이제야* 이 장소가 왜 그렇게 낯설었는지 알겠군. 수련생 시절 이후로는 이런 걸 느껴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왜 수호자의 힘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굴단...”

카드가가 마력을 방출했다. 굴단은 긴장했지만, 비전 마법은 바깥쪽으로 퍼져 나가지 않고 공중에 형상을 만들어냈다. 쐐기 모양으로 카드가 키의 세 배 정도 되는 물체가 빛을 내뿜었고, 그 윤곽은 삐죽삐죽했다. 카드가가 손을 회전시키자, 날카로운 면이 바닥으로 향했다.

대마법사의 고통에 찬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 하지만 뭘 하려는지는 알겠어.” 비전 정령들이 쐐기를 향해 모여들었다. 그들의 팔이 하나가 되었다. “내가 돕겠다.”

굴단은 킬제덴으로부터 무언의 경고를 받았다.

정령들이 쐐기를 아래로 잡아당기자, 그 물체는 지면을 강타하고 석조 바닥을 깨뜨렸다. 방 전체가 흔들리고, 굴단도 쓰러졌다.

—저자를! 당장 죽여라, 굴단!—

킬제덴의 계획은 엉망이 되었다. 굴단은 벌떡 일어나 검은 망토를 어깨에서 벗었다. 이제 숨을 필요가 없었다. 모든 주문을 버렸다. “복종합니다, 킬제덴.” 오크는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카드가가 즉시 그를 발견했다. “그래, 킬제덴이었군.” 그는 싱긋 웃으며 두 손을 앞으로 뻗었다.

카드가와 굴단의 힘이 중앙에서 충돌하며 천둥처럼 울부짖었다. 전투의 열기에 아래쪽 돌들이 물렁해지고, 비전 정령들은 다시 쐐기를 들어올렸다. 방이 흔들렸다.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 차원문을 열어야 하는 섬세한 장치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쐐기가 계속 위아래로 움직였다. 보라색과 초록색 빛이 소용돌이치며 깜빡였다.

공간이 파괴되는 중이었다. 카드가는 방 전체와 함께 군단의 차원문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굴단은 계속 공격했고, 카드가는 모두 막아냈다. 반격할 필요는 없었다. 이미 이기고 있었으니까.

"킬제덴," 굴단이 속삭였다. "무덤의 힘이 필요합니다."

—안 돼.—

굴단은 말을 마구 뱉었다. "하나 남은 봉인은 아직 보호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걸 부술 수도, 저자를 처치할 수도 없습니다! 놈은 수십 년 동안 날 연구해 왔으니, 날 막을 수 있습니다."

—넌 날 배신할 거야.—

굴단은 공격에 힘을 더했다. 카드가는 흔들렸지만 굳건히 버텼다. 좌절스러웠다. "카드가가 무덤을 파괴하면 군단도 다시는 이곳을 쓸 수 없습니다. 이 바보를 정말 죽여 버리고 싶지만, 잘못하면 당신네 계획이 모두 잿더미가 될 겁니다."

카드가의 얼굴에 땀이 방울져 흘렀다. "이야기를 하다 말았군. 넌 살게라스의 무덤에 들어온 후, 매복 공격을 당해 죽었다."

굴단은 킬제덴이 머뭇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기만자는 날 너무 잘 알아.*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세계에 있는 불의 호수와 같은 뭔가가 손에 닿았다...

"다른 굴단은 얼라이언스의 손이나, 배신한 호드의 손에 죽은 게 아니다." 카드가가 말했다. 굴단도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자는 이 무덤에 들어와서 악마의 손에 사지가 찢겨 죽었다. 불타는 군단에게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겠지."

그 말이 굴단을 강타했다.

오래전 드레노어에서 그는 추방자였다. 끼니 걱정뿐 아무런 야망도 없었다. 군단이 그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보여 주었다. 힘은 무시되지 않는다. 그 뒤로 한 번도 굶주리지 않았다.

카드가가 그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 주었다. 굴단의 힘도 유용하지 않을 때가 온다. 군단이 그를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었다.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게 운명이었다.

그 순간 힘이 쏟아져 들어왔다.

카드가가 말을 이었다. "일이 끝나면 놈들이 널 어떻게 할지 궁금하구나, 굴단." 그 순간 카드가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뭔가 달라졌다.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흑마법사?"

굴단은 카드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힘을 마지막 봉인을 향해 돌렸다. 남은 힘을 모두 쏟았다. 군단에게 빌린 힘 전부였다. 굴단은 지옥의 손아귀로 마지막 봉인을 붙잡아...

... 으스러뜨렸다. 치명적인 마력이 뿜어져 나와 그의 힘과 부딪혔다.

그렇게 봉인은 사라졌다. 두 세계 사이의 방벽을 깨뜨릴 만큼 강한 불타는 군단의 힘이 풀려났고, 이 섬 깊은 곳에 묻힌 차원문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그 힘은 이 세계에 풀려나지 못했다. 굴단의 차지였다.

불이 굴단의 정신을 채웠다. 굴단은 비명을 지르고 머리를 움켜쥐며 눈을 감았다.
카드가도 무덤도 잊었다. 방어가 무너지자 카드가의 비전 격노가 그를 휩쓸었다. 굴단은 힘에 질식하느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그저 끝없는 바다에 빠져들었다.

사악했다. 정말이지 아름다웠다. 그는 깊이 들이마셨다.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균형을 찾았다. 제어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진짜 힘이었다. 그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이었다. 이게 불타는 군단이 약속했던, 무시되지 않는 힘이었다.

지금까지 악마들이 준 건 부스러기였다. 쓰고 버릴 바보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굴단은 눈을 떴다. "잘 가라, 대마법사."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들어올렸다.

카드가는 얼음으로 자신을 감쌌다.

압도적인 격노가 분출되었다. 방은 거친 바다 위 배처럼 흔들렸다. 비전 정령들과 쐐기가 한 순간에 소멸했다.

얼음 덩어리와 그 안의 대마법사는 폭풍 속 자갈과 같았다. 하지만 흑마법사가 아무리 강하게 움켜쥐어도 깨지지 않았다. 놀라웠다. 굴단은 원한다면 온 세계도 깨뜨릴 수 있을

것만 같았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 카드가는 나중에 없애도 된다. 굴단이 손을 젓자 얼음 덩어리는 문을 통해 날아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굴단은 문을 붕괴시켰다. 엄청난 양의 바위들이 쏟아져 내려 방을 봉쇄했다. 카드가가 아직 살아 있다고 해도 이제는 문제 없었다.

굴단이 이겼다. 그가 품은 힘은 기대 이상이었다. 가능성은 끝이 없었다.

그런데도 킬제덴은 아직 명령을 내리려고 했다.

— 넌 맹약을 맺었다, 굴단. 임무를 마쳐라. 우리의 길을 열어라.—

굴단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 순간을 음미했다.

“아니, 킬제덴." 그가 대답했다. "그러지 않겠다.”

©2016 Blizzard Entertainment, Inc. 모든 권리는 Blizzard Entertainment 에게 있습니다. Legion 은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이며, World of Warcraft 와 Warcraft 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 입니다.